

LuaTeX-ko 간단 매뉴얼

Dohyun Kim <nomos at ktug org>

<<http://github.com/dohyunkim/luatexko>>

Version 1.4 2014년 1월 20일

For a summary introduction in English, please see [README](#) file.

주요 변경 사항:

- 플레인텍에서도 `luatexko.sty`을 불러야 한다.
- 패키지 옵션 `unfonts`가 선언되지 않으면 은글꼴을 자동으로 부르지 않는다.
- 글꼴 옵션값을 `<dimen>`으로 지시한다.
- 세로쓰기를 더 이상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.
- METAPOST 코드를 넣으려면 `luamplib` 패키지를 불러야 한다.

1.3 —

- `fallbackfont` 계열의 명령이 추가되었다.
- `\hangulpunctuations` 선언 및 관련 매크로가 추가되었고, 대신 `QuoteRaise` 옵션이 없어졌다.
- `\josaignoreparens=1`이 선언되면 자동조사 결정시 괄호 부분을 무시한다.

1

TeX Live 2013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. 아직 LuaTeX은 베타 상태로 개발 중에 있으므로 안정적인 동작을 보장하지 않는다.

2

LuaTeX-ko 로드하기: `\usepackage{luatexko}`. 플레인텍은 `\input luatexko.sty`. 입력은 원칙적으로 UTF-8으로 한다. BOM (Byte Order Mark)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. CP949 인코딩에 관해서는 제 18절 참조.

3

패키지 옵션으로 [hangul] 과 [hanja] 가 제공된다. 장 제목이나 표·그림 캡션 따위가 한글 또는 한자 방식으로 표시된다. 다만 장(chapter) 제목과 편(part) 제목에만 “제(第)”가 붙어 “제 1 편” “제 3 장”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되며 절 제목 이하에는 붙지 않는다.

또한 [unfonts] 는 은글꼴을 불러오는 패키지 옵션이다. 이전 버전과 달리 **은글꼴이 기본으로 로드되지 않음**에 유의할 것.

4

LuaTeX-ko 를 로드하면 fontspec 패키지를 자동으로 불러온다. 글꼴 설정에 대해서는 fontspec 문서를 참조하라.

한국어 글꼴을 위해 새로 마련한 명령은 다음과 같다.

```
\setmainhangulfont      \setmainhanjafont      \setmainfallbackfont
\setsanshangulfont      \setsanshanjafont      \setsansfallbackfont
\setmonohangulfont      \setmonohanjafont      \setmonofallbackfont
\newhangulfontfamily    \newhanjafontfamily    \newfallbackfontfamily
\addhangulfontfeature   \addhanjafontfeature   \addfallbackfontfeature
\hangulfontspec         \hanjafontspec         \fallbackfontspec
```

\adhochangulfont \adhochanjafont \adhocfallbackfont 는 각각 \hangulfontspec \hanjafontspec \fallbackfontspec 의 다른 이름이다.

플레인텍에서 한글 글꼴 설정은 영문 글꼴 지정하는 방식과 거의 같다.

```
\hangulfont=UnDotum\relax
\hanjafont=UnDotum at 14pt
\fallbackfont=HanaMinB at 12pt
\hangulfont=UnDotum scaled 2000
\hanjafont{HCR Batang LVT}\relax
\hangulfont={HCR Batang LVT:script=hang;+dlig} at 12pt
```

5

원칙적으로 LuaTeX-ko에서는 영문폰트에 지정한 글자가 없으면 한글폰트에서, 한글폰트에도 없으면 한자폰트에서, **한자폰트에도 없으면 fallback 폰트에서** 글자를 찾아 찍는다. 기존 ko.TeX과는 글꼴 대체 방식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.

하지만 \hanjabyhanjafont=1 을 선언하면 한자는 우선 한자글꼴로 식자한다. 0 을 선언하면 원래 방식으로 되돌아간다. 이 명령은 문단 중간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 문단 중에 사용되었다면 그 문단의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훈더이고.
 天塹上上白帛玉옥京京을 었디하야 離니別별 하고
 히 다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

 어와 네여이고 내 스설 드러보오.
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훈가마논
 었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
 나도 님을 미더 군 떠디 전혀 업서
 이리야 교타야 어즈러이 구똥똥디
 받기시논 ㄴ비치 네와 었디 다투신고.

그림 1: 옛한글 조판 보기

`\hangulpunctuations=1`을 선언하면 영문 **문장부호들을 한글 폰트로** 식자한다. 0을 지시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. `[hangul]` 옵션을 주면 `\hangulpunctuations=1`이 자동으로 선언된다. 이 선언에 의해 영향 받는 문장부호들을 다음처럼 지정할 수 있다. 인자는 콤마로 연결된 숫자 형식으로서 유니코드 코드포인트를 뜻한다.

```

\registerpunctuations{45, "2D, `~}
\unregisterpunctuations{"2D, "2015}

```

6

fontspec의 글꼴 옵션 외에 Lua_{TeX}-ko가 따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다.¹

InterHangul 한글 글자 사이의 자간. 아래는 -0.04em 만큼 한글 자간을 지시한다.

```
[InterHangul=-0.04em]
```

InterLatinCJK 한글 또는 한자와 라틴 문자 사이의 자간을 설정한다.

```
[InterLatinCJK=0.125em]
```

CharRaise 글자의 세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다. 이로써 주변에 식자되는 다른 글꼴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.

```
[CharRaise=0.1em]
```

¹ 옛한글 식자를 위해서는 `[Script=Hangul]` 옵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. 그러나 `[YetHangul]` 옵션을 써도 무해하다.

子曰：「學而時習之，不亦說乎？有朋自遠方來，不亦樂乎？人不知而不慍，不亦君子乎？」

有子曰：「其為人也孝弟，而好犯上者，鮮矣！不好犯上，而好作亂者，未之有也！君子務本，本立而道生；孝弟也者，其為仁之本歟？」

子曰：「巧言令色，鮮矣仁！」

曾子曰：「吾日三省吾身：為人謀，而不忠乎？與朋友交，而不信乎？傳，不習乎？」

子曰：「道千乘之國，敬事而信，節用而愛人，使民以時。」

그림 2: 고문헌 조판 보기

PunctRaise 한글 또는 한자 다음에 라틴 구두점 —마침표에 한한다—이 왔을 때 그 세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. `\hangulpunctuations`로 인해 거의 쓸 일이 없게 되었다.

`[PunctRaise=-0.125em]`

Protrusion 특정 글자가 행 끝에 왔을 때 판면 바깥으로 끌어내는 기능이다. Lua_{La}T_EX의 기본값은 구두점들만 완전히 글자내밀기 한다. 즉 hanging punctuation이 작동한다.

`[Protrusion]`

이는 `Protrusion=default`와 마찬가지로 뜻이다. 마이크로타입에 관심 있으면 자신만의 설정을 만들어 지정할 수 있다.

Expansion 판면의 균일한 조판을 위해 글자들을 미세하게 늘이거나 줄이는 기능이다.

`[Expansion]`

이는 `Expansion=default`와 마찬가지로 뜻이다.

7

고문헌·일본어·중국어 조판을 위해 `japanese`, `Schinese`, `Tchinese` 환경을 제공한다. `chinese`는 `Schinese`의 다른 이름이다. `korean` 환경도 마련했는데 이들 환경 안에서 잠깐 한국어를 조판하는 데 사용한다. 일본어·중국어라도 글꼴 설정은 `\newhangulfontfamily` `\newhanjafontfamily` 따위를 이용한다. 그림 2 참조.

8

Lua_T_EX-ko가 글자 사이에 삽입하는 미세간격을 사용자가 영(zero)으로 강제하기 위해선 `\inhibitglue` 명령을 이용한다. 대체로 일본어·중국어 환경에서만 문제된다.

```

\usepackage{luamplib}
...
\begin{mplibcode}
  beginfig(1);
    draw fullcircle scaled 2cm;
    dotlabel.bot(btex \TeX etex, origin);
    dotlabel.rt(btex 루아 etex, dir 45*1cm);
  endfig;
\end{mplibcode}
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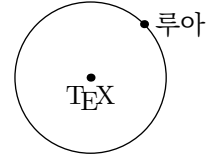


그림 3: mplib 용례

9

$\$가\sim\{나\}\$ \Rightarrow 가^{나}$

수식 모드에서도 한글을 (hbox로 감싸지 않고) 직접 입력할 수 있다. 문서의 기본 한글 글꼴이 자동으로 수식 한글에도 적용되므로 따로 설정할 것이 없지만 굳이 한다면 다음처럼 지시한다.

```
\setmathhangulfont{HCRBatang}
```

현재 한글만 쓸 수 있게 설정되어 있다.

10

LuaTeX에서는 아직 **세로쓰기를 지원하지 않는다**.²

11

전처리부에서 `\usepackage{luamplib}`을 선언하면 METAPOST 코드를 문서 중간에 삽입할 수 있다. 한글이나 수식은 `btex ... etex` 안에 넣어야 한다. 그림 3 참조.

12

`\dotemph` 명령으로 **드러냄표**를 이용한 강조를 할 수 있다. 기본은 글자 위에 점을 찍는 형태이나 다음과 같이 명령을 주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기호를 드러냄표로 쓸 수 있다.

```

\def\dotemphraise{0.4em }
\def\dotemphchar{\bfseries ~~~~02d9}

```

² 굳이 세로쓰기를 실험해보고자 한다면 `ttx -t vmtx <폰트>.ttf` 명령의 결과물인 `<폰트>.ttx`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에 두어야 한다. 그런 다음 `\begin{vertical}{<dimen>}... \end{vertical}` 환경을 이용하라. ttx에 대해선 <http://sourceforge.net/projects/fonttools/> 참조. 문서 전체에 대해 세로쓰기를 하려면 이 환경을 쓰는 대신 `\verticaltypesetting` 명령을 전처리부에 선언한다.

전자는 드리네표를 피강조 글자 위로 끌어올리는 길이를, 후자는 드리네표 기호 자체를 정의한다. ~~~02d9는 유니코드 코드포인트를 뜻하는 16진수이고 소문자로만 써야 한다. 숫자 대신 직접 문자를 입력해도 된다. 플레인텍에서도 쓸 수 있다.

13

루비를 달 수 있다. ruby 패키지가 이미 존재하지만 LuaTeX-ko와 궁합이 잘 맞지 않아 새로 매크로를 제공한다. 플레인텍도 지원한다.

`\ruby{漢字}{한자}` ⇒ ^{한 자}漢字

이처럼 글자별로 따로 루비를 달 필요가 없다. 관련 설정은 다음처럼 한다.

- ① `\rubyfont`: 루비를 식자할 폰트를 지시해 둔다.
- ② `\def\rubysize{0.6}`: 루비 글자 크기를 본문 글자 크기에 대한 비율로 지정
- ③ `\def\rubysep{0.2ex}`: 루비와 본문 글자 사이의 간격을 지정
- ④ `\rubynoooverlap`: 루비의 폭이 본문 글자의 폭보다 클 때 루비가 이웃 글자들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. 본문 글자의 흐름을 중시하여 `\rubyoverlap`을 기본값으로 하였으므로 이는 따로 선언할 필요가 없다.

14

ulem 패키지가 Lua_{TEX}-ko와 궁합이 잘 맞지 않아(줄바꿈에 문제가 있음) 명령을 따로 제공한
다. 플레인텍에서도 쓸 수 있다.

<code>\uline{밑줄을 그을 수 있다}</code>	⇒	<u>밑줄을 그을 수 있다</u>
<code>\sout{취소선을 그을 수 있다}</code>	⇒	취소선을 그을 수 있다
<code>\uuline{밑줄을 두 줄 긋는다}</code>	⇒	<u><u>밑줄을 두 줄 긋는다</u></u>
<code>\xout{빋금으로 취소할 수 있다}</code>	⇒	빋금으로 취소할 수 있다
<code>\uwave{물결표로 밑줄을 삼는다}</code>	⇒	<u>물결표로 밑줄을 삼는다</u>
<code>\dashuline{대시로 밑줄을 삼는다}</code>	⇒	- - - 대시로 밑줄을 삼는다
<code>\dotuline{밑줄을 점선으로 긋는다}</code>	⇒ 밑줄을 점선으로 긋는다

관련하여 다음 설정을 할 수 있다.

- ① `\def\ulinedown{0.25em}`: 밑줄을 베이스라인 아래로 끌어내리는 정도
- ② `\def\ulinewidth{0.04em}`: 밑줄의 굵기

15

자동조사는 `ko_TeX`과 동일하게 \은 \는 \이 \가 \을 \를 \와 \과 \로 \으로 \라 \이라
 따위를 사용한다. 문장 중에서도 작동할 뿐만 아니라 플레인텍도 지원한다. 버전 1.3부터는

`\josaignoreparens=1`이 선언되어 있으면 자동조사는 괄호 부분을 건너뛰고 그 앞 글자에 매칭한다. 0이 선언되면 원래 방식으로 돌아간다.

```
\josaignoreparens=1
홍길동(1992)\는 ⇒ 홍길동(1992)은
홍길동(2001)\로 ⇒ 홍길동(2001)으로

\josaignoreparens=0
홍길동(1992)\는 ⇒ 홍길동(1992)는
홍길동(2001)\로 ⇒ 홍길동(2001)로
```

16

항목 번호를 한국어 기호로 붙일 수 있다. $\text{\textit{ko}}\text{\TeX}$ 과 동일하게 `\jaso \gana \ojaso \ogana \pjaso \pgana \onum \pnum \oeng \peng \hnum \Hnum \hroman \hRoman \hNum \hanjanum` 따위를 사용한다.

17

`\luatexhangulnormalize=1`이라 지시하면 첫가끝 자모를 완성형 음절로, 2라면 완성형 음절을 첫가끝 자모로 인코딩 변환한다. 0이 할당되면 인코딩 변환 기능이 꺼진다. $\text{\textit{X}}\text{\TeX}$ 의 `\XeTeXinputnormalization` 명령과 유사하나 오직 한글과 일부 한자에 대해서만 정규화가 작동하는 점에서 $\text{\textit{X}}\text{\TeX}$ 의 그것에 비해 기능이 한참 모자란다.

18

권장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입력 인코딩이 UHC (CP949라고도 하며 EUC-KR을 포함한다)인 파일을 처리할 때는 `\luatexuhcinputencoding=1`을 선언한다. 0을 할당하면 다시 UTF-8 입력으로 간주한다. $\text{\textit{X}}\text{\TeX}$ 의 `\XeTeXinputencoding` 명령과 유사하나 오직 한국어 문자만 처리할 수 있어 $\text{\textit{X}}\text{\TeX}$ 의 그것에 비해 기능이 한참 모자란다.

19

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파일 이름이 UHC로 인코딩되어 있다면 `\luatexuhcfilenames=1`을 선언한다. 0을 할당하면 다시 UTF-8 이름으로 간주한다. 윈도 계열 운영체제에서만 문제될 것이다. □